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손은혜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Huntsville
파견대학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2. 8월~ 2013. 5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위치는 시골입니다. 막 주변이 변화한 그런 곳은 아니어서 조용하고 좋습니다. 학교는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고 시설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분위기는 아늑한 느낌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 있다고 해서 별로 기대를 안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상당히 만족했습니다.</p>
2012-2학기 수업	<p>Jazz dance I – 재즈댄스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매 시간마다 재즈댄스에 관련된 기본 동작들과 performance를 위한 동작을 배웁니다. 시험은 배운 동작들을 봅니다. 춤에 관심있다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학기말에 공연합니다.</p> <p>Managerial accounting – 관리회계의 기초를 배웁니다. 과제는 배운 내용을 문제로 푸는 건데 한 챕터가 끝날 때 마다 내줍니다. (교수마다 다름)</p> <p>Personal finance – 개인자산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finance영역의 기초를 다루고 비전공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제는 개인 자산관리에 관한 것을 내주고 모의 주식투자도 합니다.</p> <p>Spanish – 스페인어 기초를 배웁니다. 타 언어에 관심 있다면 수강하면 좋을 듯 하나 만약 관심이 없다면 듣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제는 거의 매일 있습니다.</p>

2013-1학기 수업	<p>Business finance – 3학년 수업이고 계산하는 수업(현재가치, 미래가치 등)입니다.</p> <p>Composition I – 작문 수업입니다. 작문에 대한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들으시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어떤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은 듣지 마세요.</p> <p>Int bus principle – finance의 원리 같은 과목으로 금융과 관련된 용어나 개념들의 기초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열리며 금융관련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입니다.</p> <p>Human communication – 스피킹 수업입니다. 교수님마다 다르지만 paper시험 세번과 두번의 스피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버디 프로그램이 있어서 외국인 친구와 일대일로 짝을 맺어줍니다.</p> <p>그리고 비 정기적으로 international office 에서 exchange students를 위한 이벤트를 해서 버디와 같이 놀러가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기후는 햇볕이 강해서 sunglasses는 필수!! 입니다. 겨울에도 별로 안 춥다고 해서 겨울옷은 안가지고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겨울에도 좀 추웠습니다. 특히, 비오고 난 후의 날씨는 정말 춥습니다... 약간 두꺼운 옷도 가져오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오리털 파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과 밖의 온도차가 크므로 꼭 가디건 같은 거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p>
안전	<p>저녁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해서 꼭 해지기 전에 귀가하고 했는데 별로 그다지 많이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p> <p>그래도 저녁에 혼자서 돌아다니거나 밤 늦게 귀가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1학기때는 the pines라는 곳에 살았는데 헌츠빌에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마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주변도 조용하고 마트도 가깝고 학교도 가까워서 좋았습니다.</p> <p>2학기때는 arbors라는 곳에 살았는데 많은 international 학생들이 이 곳에 삽니다. office에서 여러 행사 같은 것도 많이 개최해서 많은 문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살기에 불편함 없이 좋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p> <p>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직접 요리하여 들고 다녔습니다. 샌드위치나 아니면 밥이랑 반찬 등을 먹었습니다. 가끔씩 학교식당이나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는데 식비를 아끼고 싶다면 주로 집에서 싸서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p>
<p>교통</p>	<p>대중교통이 없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다닙니다. 외부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같이 가거나 해야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200만원	
Fees	처음 갔을 때 내는 보험비 - 약 100만원 2학기때 성적표 비 - 약 15000원	
보험료	학교에서 하는 보험을 꼭 사야합니다 (Must). 위에서 말했듯이 대략 한화로 100만원 정도 합니다.	
숙소	Utilities 비 포함 약 50만원 per month	
식비	???	
교통비	기본적으로는 0	친구한테 외부로 나갈 때 라이드를 부탁한다면 기름값정도는 주는 것이 매너.
책값	약 50만원	책값이 매우 비쌉니다.
기타1	여행비 약 200만원	방학 때 서부여행
기타2		
합계	약 15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꼭 I-20와 sevis fee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 있는데 미국가서 사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챙기신다면 절대 챙기지 마세요. 한국에서 안쓰던건 미국에서도 안씁니다.

그리고 굳이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설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과연 수업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친구들은 잘 사귄 수 있을까 라는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도 되게 착하고 친절해서 친구를 만들기도 어렵지 않았고 친구들도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업들도 재미있고 또 내가 영어로 수업을 듣는 다는 생각에 뭔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친구들과 더 많이 만나서 놀지 못한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귄 것 외에도 미국에 가서 얻은 것 이 있다면 제 자신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또 왜 미국이 선진국인가,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많은 것을 얻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가자마자 처음을 본 발리볼 경기



Texas night (party) with my best friend!!



SHSU football game



Rodeo



친구들과 만든 할로윈 컵케익



친구들과 설날맞이 놀이